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준비한 독일의 「Urban 2030」

-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독일의 ‘도시 2030’(Urban 2030)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전망하고 현재의 도시들이 어떻게 이러한 비전을 실현해 갈 것인가를 모색한 독일 도시의 그랜드 디자인이자 미래 도시 비전과 실천 관련 ‘지식전람회’였음
- 이 프로젝트는 성장과 침체(도시 경제), 도시의 통합능력(도시의 사회적 통합성), 도시행정구역의 재조정(도시의 지역화), 도시의 문화(도시의 정체성)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발전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었음
 - 이를 위해 구성된 연구그룹(도시 2030)은 도시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思考 實驗室’이자 研究 實驗室’ 역할을 하였음
- 이것은 독일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시행해 온 도시연구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서 전국에서 제안된 총 110개 프로젝트 가운데 21개가 선정되었음
 - 21개 프로젝트는 33개 도시의 54개 연구기관이 각각 연구그룹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며, 타 도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내었음
- 독일과 같은 일종의 ‘지식공모’와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미래에 대응해야 할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발전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실무자들의 풍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1990년대 후반부터 독일 도시전문가들과 도시행정가 그리고 시민들은 도시들의 기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음
 - 이런 문제는 통일에 따른 ‘건설특수’가 정점을 지난 1997년 이후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음
 - 그동안 단기적 과제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음
-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지식산업의 성장, 세계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다원화된 생활행태, 정부복지지원의 한계, 도시의 개발침체 등 크게 변화된 여건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음
- 특히 지방 중소도시들은 자기정체성, 통합, 지역화, 지역민주주의 등의 영역에서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음
 - 이러한 과제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게 되었음

2. 추진경과

- 2000년 5월 전국의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형태로 도시구상공모 ‘도시 2030’을 시작하였음
 - 제안서에는 전체적인 도시 및 지역발전 전망, 미래의 구상, 비전이나 모델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특정기관의 단독 응모는 안 되며 반드시 복수의 연구기관들이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토록 함
- ‘통합(Integration)’, ‘정체성(Identitaet)’, ‘지역화(Regionalisierung)’ 영역을 대상으로 모델사업 제안서들을 평가하였으며, 도시규모 및 도시성장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사업 선정

- ‘통합’, ‘정체성’, ‘지역화’ 영역은 독일의 중심적인 국가기능인 ‘사회적 국가(Sozialstaat)’, ‘문화적 국가(Kulturstaat)’, ‘법치국가(Rechtsstaat)’와 연계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독일도시연구소(DIFU)는 이들 21개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정책제안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표 1] ‘도시 2030’의 추진과정

추진과정	기간, 기타
공모 공지	2000. 5
선정작업	2000. 10
선정사업 발표	2001. 3
개별 연구그룹의 세부계획 수립	2001. 4~2002. 3
가장 먼저 승인받은 사업의 시작	2001. 5. 1
가장 나중에 승인받은 사업의 종료	2004. 6. 30
모델사업의 개수	21개
지원금수령단체	55개

자료: 독일연방교육연구부, 2004.

- 2001년 3월 총 110개의 제안서 가운데 최종적으로 21개의 모델사업 제안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 연구그룹(도시 2030)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경로(road map)를 제시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지침, 시나리오, 비전 등을 작성하였음
- 이들은 새로운 문제의식과 기회인식을 갖게 되었고, “도시-지역(Stadt-Region)”에서

[표 2] ‘도시 2030’에 의한 21개 모델사업

구분		통합 (Integration)	정체성 (Identitaet)	지역화 (Regionalisierung)
대도시 (인구 25만 초과)	성장 또는 안정	Stuttgart Muenchen		Karlsruhe
	축소 또는 구조조정	Bremen Leipzig	Moenchengladbach	Braunschweig Staetregion Ruhr
중급도시 (인구 5만-25만)	성장 또는 안정	Esslingen	Erlangen	
	축소 또는 구조조정	Saarbruecken	Kiel	Goerlitz/Zgorzelec Giessen/Wetzlar
소도시 (인구 5만 미만)	성장 또는 안정	Dietzenbach	Guenzburg	Schkeuditz
	축소 또는 구조조정		Guben/Gubin Eisenhuettenstadt Beeskow	Schwalm-Eder-West

주: 통합, 정체성, 지역화 등 3개의 주제영역에 대해 도시규모와 도시성장 여부를 기준으로 구성

자료: Albrecht Goeschel, 2003. “Der Forschungsverband ‘Stadt 2030’”. in: Das Parlament 7. Juli 2003(B28/2003).

새로운 협력을 시도하였음

○ 타 도시들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사업의 성과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음

- 8개의 도시 시장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를 위해 도시-지역협약을 체결(루르 도시지역; *Staedteregion Ruhr*)
- 지역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한 협의체 설립과 지역 사업계획 수립(기센-베츨라; *Giessen-Wetzlar*)
- 정치적으로 신임받은 협력체, 과학적으로 수립된 접경지역 협력시나리오 제시(겔리츠(독)/ 고르젤렉(폴); *Goerlitz/Zgorzelec*)
- 도시침체를 긍정적인 의미로 재창조하고, 행정적, 조직적 도시구조 정비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 제시(라이프찌히; *Leipzig*)
- 극단적인 도시침체하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차원적인 도시모델 수립(구벤/ 구빈; *Guben/ Gubin*)
- 위기상황의 구 공업지대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여가, 보건, 양로 부문의 미래 수요 수용방안 제시(킵, 아이젠후텐슈타트, 슈밤-에더-베스트; *Kiel, Eisenhuettenstadt, Schwalm-Eder-West*)
- 시민검증과 같은 새로운 시민참여 방안의 검증(브라운슈바이크; *Braunschweig*), ‘미적인 자극’(디젠바우(*Dietzenbach*))의 유희토지 임시사용, 기센/ 베츨라(*Giessen/Wetzlar*)의 *Lahn*강 설치미술)
- 대중교통수단이나 유치원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개별적 이용이나 적시 이용을 위한 관리모델 제시(브레멘; *Bremen*)

[사진 1] 21개 당선작 시상식(2001)



[그림 1] 21개 모델사업 선정도시들



3. 주요 과제별 성과

- 새로운 도시정체성 (Identity) 의 제시: 아이젠후텐슈타트(Eisenhuetttenstadt)와
귄쯔부르크(Guenzburg) 등
 - 통일 이전에 동독의 철강공업도시였던 아이젠후텐슈타트는 통일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 ‘철강의 도시’로부터 ‘철강산업도 있는 도시’로의 전환
 - 통일 이전 동독의 ‘신생도시’로부터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로의 전환
 - 철강과 서비스부문을 두 축으로 하는 ‘생동감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 뮌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귄쯔부르크는 대규모 여가위락시설 유치를 통해 평범한 지방의 소도시로부터 현대적인 여가휴양도시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구축
 - 2002년 5월 개장한 레고랜드(Legoland) 개장을 통해 ‘여가도시’와 ‘문화도시’, ‘체험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사진 2] 아이젠후텐슈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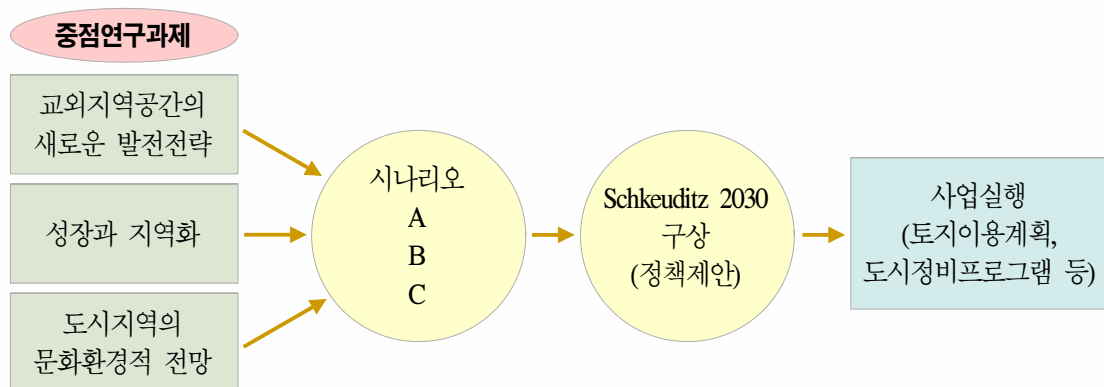
- 이 외에도 킬(Kiel)은 기존의 ‘조선소 도시’, ‘항구도시’, ‘공업도시’로부터 ‘수변 여가도시’ 및 ‘해양 비즈니스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사진 3] 귄쯔부르크의 레고랜드(Legoland)



- 도시의 미래 전망으로서의 지역화(Regionalisierung) : 슈코이디츠(Schkeuditz) 등
 - 작센(Sachsen)주의 할레(Halle)-라이프찌히(Leipzig) 대도시권에 위치한 슈코이디츠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였음
 - 향후 대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중간도시로서 슈코이디츠의 역할에 대한 구상이 제안되었음
 - ‘슈코이디츠(Schkeuditz)-도시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화를 위한 슈코이디츠의 과제가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통해 제시되었음
 - 대도시권지역에서 슈코이디츠의 향후 역할과 미래 도시구조에 대한 전략
 - 슈코이디츠와 주변지역의 역동적인 성장과정
 - 할레(Halle)-라이프찌히(Leipzig) 대도시권에서의 문화환경적 전망

【그림 2】 “슈코이디츠(Schkeuditz)-도시 2030” 프로젝트 추진과정



- 루르(Ruhr)지대에 위치한 8개 도시 시장들은 2003년 6월 상호 협력을 통한 도시지역 루르의 공동발전을 위한 도시지역협약(Der Stadtregionale Kontrakt)을 맺었음
 - 행정구역 경계는 분리이자 동시에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 공동의 ‘활동규정’ 제정

● 도시의 사회적 통합(Integration) : 브레멘 등

○ 브레멘(Bremen)의 경우 도시 내에서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공간적 괴리 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안이 ‘시간활용’ 측면에서 제시되었음

- 도시에서 생활의 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도시내에서 ‘시간의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 특히 도시 내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사 그리고 여가를 위한 시간활용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

- 도시 내 생활의 질 개선은 사회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시간활용구조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적인 측면에서 각종 시간제한(점포 개장시간, 교통수단배차시간 등)의 조정과 연계되어 있음

[사진 4] 슈코이디츠



○ 브레멘은 ‘시간 의식을 가진 도시’라는 모토하에 유아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제안

- 유아 보호시간의 탄력적인 조정 (야간 연장가능)
- 휴가나 질병 등 장기간에 걸친 탁아기능
- 아동교육적 프로그램의 개선 등

[사진 5] 도시지역 루르(Staedtregion Ruhr): 도시지역협약



4. 우리에게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도시 2030’ 프로젝트는 다양한 영역의 도시 전문가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도시의 장기 비전을 제시토록 유도하고 타 도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사업들을 개발하여 전파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학술적 영역의 전문가들과 실무영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이것을 정부가 지원한 지식협력모델임
- 21세기 우리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필요성
 -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
 - 특히 기존 도시의 활로와 새로운 정체성, 발전모델 모색이 필요함
- 도시의 발전 비전과 관련되어 지방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수도권중심의 논의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방의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연구과제 공개경쟁이 필요
-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을 연계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
- 독일의 경우처럼 시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제안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도시 발전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창출

●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이상준 연구위원 (031-380-0175, sjlee@krihs.re.kr)